

더디고 먼 길

「歷史의 方法」을 쓰고 나서

梁秉祐

서울대 명예교수 · 서양사



초고가 일단 완성된 것이 제작년 여름이었다. 그런데 다른 일들로 해서 때때로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거의 10년에 걸친 작업이었으므로, 원고 자체가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었다. 처음엔 원고지에 만년필로 썼다가 도중에 기계식 타자기로 바뀌고, 맨 나중에 쓴 것은 전자식 타자기로 친 것이었다.

그러니 내용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도 문장이 고르지 못하였다. 처음에 쓴 글은 한자투성이었는데, 나중에 쓴 것은 그야말로 '하얀' 순한글로 될 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9월부터 고쳐 쓰는데 온 힘을 다해서 작년 3월에 겨우 마칠 수 있었다. 반년에 걸친 고된 작업이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러한 강행군을 하지 못할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이 조그만 책을 쓰는데 참으로 오랜 시일이 걸렸다. 무엇보다 내 능력이 모자란 탓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렸으니 다소의 감개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벌써 미흡한 점이 더러 눈에 띄는

이 책이 나오는 데엔 더 오랜 시일이 걸렸던 것이다.

미로에서 해낸 신참교수 시절

대학의 강단에 처음으로 선 것이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 여기저기에 지방대학이 신설되었으나 교수감이 모자란 형편이어서, 나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도 전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요즘 학위를 따고도 대학에 자리잡기가 어려운 것을 보면, 그때는 '호랑이 담배 먹을 적'이었던 것 같다. 아무튼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과에서 시키는 대로 맡은 과목의 하나가 다름 아닌 '사학개론'이었다.

그것은 신참인데다 서양사를 한다는 사람이나 혼자뿐이었으니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주저없이 냉큼 맡고 나섰으니,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 처사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복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베르하임의 연구법과 베버의 방법론을 근사하게 종합한다는 것이었다. 막상 해보니, 근사하게는 고사하고 그 둘을 종합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곧 알게 되었으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된 것은 훨씬 뒤에 가서였다.

콜링우드든 어느 글에서 19세기의 역사학과 20세기의 그것을 명탐정 홈즈와 포와로에 견주어 있다. 홈즈의 탐탐법과 포와로의 그것을 종합한다는 것조차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베르하임은 19세기의 방법을 이론화하고 베버는 20세기를 여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니,

대학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전공분야의 연구경험도 쌓고

다른 학자들의 업적들도 살폈다.

그러는 동안 느리게나마 조금씩

깨쳐나가고, 글도 더러 쓰게 되었다.

이 책은 말하자면 내 나름으로 작성한

'병상보고'이다. 이제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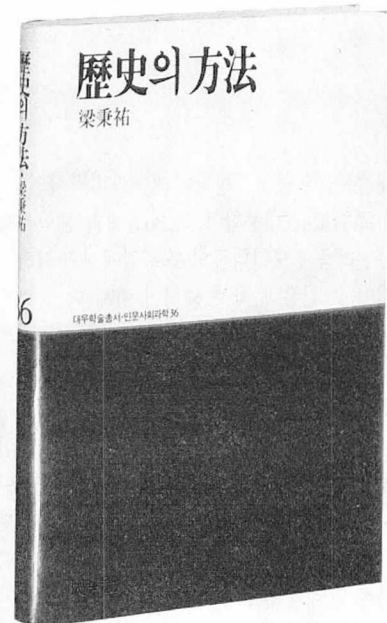
학구생활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역시 방법론을 다루게 될 것만 같다.

이들을 종합하는 일은 단순히 19세기에 20세기를 접붙이는 식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럴싸한 생각이었으나 잘 되지 않았다. 다른 과목들의 강의 준비는 적당히 해치우고, 6주 내내 '사학개론'의 강의안을 작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나, 그 결과는 매양 신통치 않았다. 강의를 반도 채우기 전에 밑천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스스로 미심쩍어진 일도 이따금 있었다. 그야말로 악전고투의 날이 계속되었다.

'사학개론'은 역사의 방법을 다루는 것이니, 방법론이며 요세 말로는 과학철학의 한 분야에 속한다. 그러기에 제대로 다루려면 우선 철학적 소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방법론이란 베버의 말마따나 '실제 연구에서 유효적절함이 증명된 방법의 자각' 외의 아무것도 아니라 하겠으므로, 다른 역사가들의 연구업적을 많이 알고 스스로도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 자격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으니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내던지지 않았던 것은, 깨치지 못한 채 그만두는 것이 싫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꺼림칙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렵사리 강의를 해나가면서 전공분야의 연구에서 다소 경험도 쌓고 다른 학자들의 업적들도 되도록 살폈다. 그래서 느리게나마 조금씩 깨쳐나가고, 글도 더러 쓰게 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더디고 먼 길이었다.

'방법론'의 탐색에 악전고투

그럴 수밖에 없었다. 베버가 '자각'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방법을 자각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나 다른 역사가들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말하자면 역사가가 스스로를 아는

韓國文學研究叢書

圖書 三知院 서울鍾路區 平洞 39-2
出版 Tel. 739-2386·737-1052

朴箕錫著 朴趾源文學研究	5,000원
李文奎著 計筠散文文學研究	4,500원
金亭子著 韓國近代小說의 文体論의 研究	5,500원
金用成·禹漢鎔 共編 韓國近代作家研究	6,500원

宋百憲著 韓國近代歷史小說研究	5,000원
朴好永·李崇源 共著 韓國詩文學의 批評的 探究	5,500원
愼憲緯著 李光洙小說의 批評的 探究	5,500원
梁汪容著 鄭芝溶詩研究	5,000원

로버트 C. 홀럽 지음 崔翔圭 옮김 受容理論	4,500원
丘仁煥·丘昌煥 共著 新編 文學概論	7,000원
丘仁煥·朴大鎬·朴寅基 禹漢鎔·崔炳宇 共著 文學教育論	6,500원

것인데, 스스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다른 역사가들의 연구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사례를 골라서 무엇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정식화해야 한다. 그러니 우선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유형이란 무엇을 어떻게 다룬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어려운 문제의 하나였는데, 그때 우연찮게 피렌의 「중세도시」를 읽음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었다.

게다가 그 책은 군데군데 귀중한 방법론적 성찰을 덧붙이고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었다. 우리말로도 번역된 미완의 유고 「역사를 위한 변명」을 남긴 블로크가 피렌의 제자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저서와 아울러 비교사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배운 바가 컸었다.

베버나 블로크 외에 크게 힘입은 학자를 든다면, 우선 힌체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 역시 봉건제도나 신분의회를 다룬 논문의 여기저기에 피렌처럼 방법론적 성찰을 곁들이고 있어서, 실제 연구에 사용된 방법을 정식화하는 데는 그러한 글이 차라리 본격적인 논의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든다면, 영국의 역사가 엘튼을 들어야 할 것이다. 다루기 힘들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다름 아닌 인과적 설명이었다. 엘튼은 정치사의 방법을 논한 저서의 한 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의 실제 연구 특히 종교개혁에 관한 연구에 입각한 것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이다.

그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활발하였던 분석철학자들의 방법론적 논의에 대해 실제연구에 어둡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연구를 떠난 논의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선은 우리들 역사가 자신이 그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베버가 역사가의 방법론적 성찰을 '환자 자신이 쓴 병상보고'에 비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아직 믿을 만한 전문적인 의사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선학들의 '병상보고'를 길잡이로 하여 우리 자신이 병을 다스려 나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말하자면 내 나름으로 그러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본 것이다.

「환자 자신이 쓴 병상보고」

그러한 성찰 없이도 위대한 역사가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식이 훌륭한 역사가를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다. 실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돌아켜 보는 일 없이 잘 해나가고 있는 학자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의 잘 잘못을 가릴 줄 알아야 분의아닌 오류를 범하지 않고 연구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무 탈없이 잘 연구해 나가다가도 언젠가는 말하자면 벽에 부딪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 그 벽을 뚫고 나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방법론적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이 책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환자 자신이 쓴 병상보고'로서 다소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환자가 스스로 병을 다스려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내놓고 돌아켜보니, 오랫동안 꽤나 먼 길을 걸어 온 셈이다. 힘에 겨운 일이라서 번번이 머리를 쥐어짜야 했으니 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하기가 앞서도 말했듯이 무엇보다도 내 능력이 모자란 탓이지만, 그 시간과 정력을 전공분야의 연구에 쏟았다더라면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서운함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서 새로 학구생활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역시 나는 방법론을 다루게 될 것만 같다. 타고난 성향인가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럴지라도 이번에는 그때마다 알아낸 것을 하나씩 논문으로 써 나아갈 뿐, 한 권의 책으로 엮는다는 생각은 아예 갖지 않을 것이다. 소위 체계적으로 쓴다는 것 때문에 쓸데없이 꽤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으니 말이다.

화제의 책

극작가 「吳泳鎭全集」 전5권 출간 희곡 · 시나리오 · 평론 등 유작 186편 수록

극작가 및 평론가로 활동하며 해방 전후 우리나라 영화 · 연극 발전의 기초를 닦았던 오영진선생(1916~1974)의 전집이 타계한지 14년만에 李根三(서강대) · 徐淵昊(고려대) 교수에 의해 엮어져 나왔다.

1938년 경성제국대학 졸업 후 민중문화운동에 가장 효율적이라 여겨지는 영화 · 연극 분야에 뜻을 두고 渡日, 영화평론을 탐구하고 영화제작에 몰두했던 그는, 광복후 서구의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다수의 영화평론 · 시나리오들을 발표했다.

이번에 출간된 전집은 ①희곡 ②시나리오 ③시나리오 ④시나리오 · 영화평론 ⑤희곡 · 수필 등 전5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희곡 17편, 시나리오 9편, 영화평론 113편과 수필 47편



이 수록돼 있다.

1943년도에 발표된 이래 수없이 무대에 올려졌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웃음을 안겨주고 있는 고전적 희곡작품 「맹진사댁 경사」를 비롯한 시나리오 「배뱅이굿」, 그리고 각종 영화평 · 수필 · 기행문들이 그의 예술에 대한 정열과 더불어 학문적 은축을 엿보게 한다.

汎韓書籍 / A5신 / 각350면 내외 / 각 6000원

独逸文学研究叢書

圖書出版 三英社 서울鍾路區平洞 19-1 Tel. 737-1052·739-2396

全光珍著	4,500원
릴케의 두이노의 悲歌研究	
黃允錫著	4,000원
힐덜린 研究	
崔淳鳳著	3,500원
토마스만 研究	
金容翊著	3,500원
프란츠 카프카 研究	
申泰浩著	2,500원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노벨레 研究	

金在玟著	3,500원
알프렛 되블린의 베를린 「알렉산더 廣場」 研究	
崔妍淑著	4,000원
넬리 작스 研究	
鄭鎭郁著	4,000원
아이헨도르프 研究	
李丙愛著	4,000원
잉게보르크 바하만 研究	
千丙熙著	3,500원
힐덜린의 핀다르 受容에 관한 研究	

劉珍玉著	3,000원
하인리히 뮐의 文学世界	
柳鍾永著	5,000원
게오르크 뷔히너 戯曲 研究	
金永珠著	4,500원
테오도르 폰타네 研究	
볼프강 보이팅 外著 許昌雲 外訳	12,000원
독일문학사	